

Overweight  
(Maintain)

증권/보험  
Analyst 김태현  
02) 3787-4904 thkim@kiwoom.com

## 손보사들의 위험손해율 추이



주: 당사커버리지 4개사 합산 기준, 2018년은 6월  
누적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2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슈 분석

## 보험

## 우려 대비 합리적인 실손보험료 조정 방안



2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방안 만을 가지고 효과를 도출했고, 2) 판매시기별로 상품의 손해율 차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당초 우려 대비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손보주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gt;&gt;&gt;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료 조정안 발표

2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다.

KDI가 올해 3월 이후 착수한 연구 용역 결과, 1)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로 추정됐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 효과(6.15%)는 19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신실손보험은 인하 요인이 반영돼서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과거 실손상품은 높은 손해율 등 누적인상요인으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즉, 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보험은 8.6% 수준의 인하가, 09년 9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6~12% 수준의 인상이, 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은 8~12%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 &gt;&gt;&gt; 예상 대비 합리적인 실손보험료 조정 방안

당사는 금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에 따른 실손보험료 조정 방안을 당초 예상 대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 만을 가지고 효과를 산출했고, 2) 판매 시기별 상품의 손해율 차이를 반영해서 가격 조정을 하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부터 우려됐던 일괄적인 보험료 인하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포퓰리즘 성격의 포괄적인 가격 인하가 아니라 손해율을 고려한 가격 조정이라는 점에서 손보주 주가에 긍정적이다.

## 〈19년 실손보험료 조정폭(예상)〉

구분	상품 특징	실제 인상, 인하 폭
(新실손, 17.4월~)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를 금지했고, 도수 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가입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	반사이익(6.15% ↓)→8.6% 수준 인하(인하요인 + 비급여특약 제외효과, 예상)
(표준화실손, 19.10월~)	자기부담금 10%이상 설정토록 의무화	인상요인(12~18% ↑)+(반사이익 6.15% ↓)→ 6~12% 수준 인상(예상)
(표준화 이전실손, ~09.9월)	자기부담금 0% 등 비표준화 상품	인상요인(14~18% ↑)+반사이익(6.15% ↓)→ 8~12% 수준 인상(예상)

주: 상기 보험료 조정폭은 연령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별로 실적요인(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금융위, 키움증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추진현황〉

구분	주요 내용	추진상황(시행)
공통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 본인부담금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보육기, 신경인지검사 등 108개 항목 급여 상급병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완료(18.1월) 완료(18.4월) 완료(18.4월) 완료(18.7월)
노인	증증치매 본인부담율 인하(20~60% 10%) 치매진단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 30%)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30%)	완료(17.10월) 완료(17.11월) 완료(18.1월) 완료(18.7월)
아동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10~20%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10%)	완료(17.10월) 완료(17.10월)
여성	난임시술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완료(17.10월)
장애인	장애인보장구(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급여대상자 확대	완료(18.7월)

자료: 보건복지부, 키움증권

##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7/07/01~2018/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60	95.24%
중립	6	3.57%
매도	2	1.19%